

# 진경산수화의 진면목... 18세기 조선의 풍광을 담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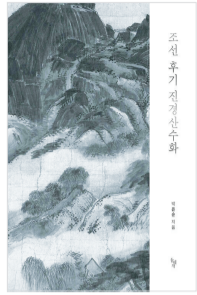
박은순 지음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우리나라 회화는 긴 역사만큼이나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유구한 회화 전통 속에서 조선 후기에 가장 많이 유행했던 회화는 실경산수화다. "현실에 존재하는 경물(景物)을 그린 산수화"가 실경산수화인데, 특히 조선 후기에 제작된 것은 '진경산수화'라 이른다.

조선 후기 실경산수화가 진경산수화로 불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전의 실경산수화와 변별되고 높이 평가 받는 이유도 한 원인이지만 "한국적인 문화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독자적이고 수준 높은 예술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 회화의 큰 특징으로 현실성, 사실성, 구체성 등을 들 수 있다. 주제와 소재, 표현상 기법에 있어 사실적인 묘사 작품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 그만큼 시각적인 사실성의 추구가 하나의 큰 줄기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민들 삶의 현장과 모습을 재현한 풍속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건 18세기 초부터였다. 반면 "묵죽과 묵매, 묵포도처럼 사의성을 강조하는 사군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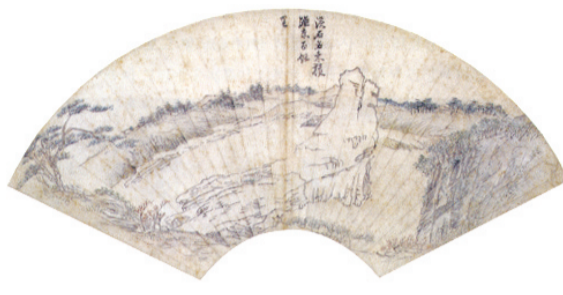
《(四君子圖)》는 급격히 영향력이 위축됐다.

조선 후기 회화사의 정수, 진경산수화의 진면목을 다룬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는 조선 후기 문화사를 아우른다. 진경산수화의 전체상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18세기 풍광까지 생생히 담고 있다. 박은순 덕성여대 미술사전공 명예교수가 저자다. 덕성여대 박물관장과 뉴욕 주립대학교 연구원, 일본 동경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외국인연구원 등을 역임한 저자는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그림', '정산: 진경산수화를 완성한 화가' 등 다수의 저서를 펴냈다.

진경산수화 등장은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맞물려 있다. 18세기 이후 조선 사회는 성리학적 이념보다는 실질적인 가치와 사상이 주목을 받았다. 다시 말해 성리학적 폐해를 극복하고자하는 탈주학적 경향과 현실 중시의 "문예적 경향과 사실적 회화"에 영향을 끼쳤다. 관념산수화보다 실제하는, 경험하고 관찰이 가능한 대상인 실경을 그리는 화풍이 급속히 확산했다.

저자에 따르면 진경산수화에는 전국 명승명소가 담겨 있다. 가장 화폭에 많이 담긴 공간은 한양과 주변의 경관이다.

"이는 18세기 초엽경 진경산수화가 한양에 세거하던 경화사족들의 주문과 후원으로 시작되었고 이후에는 궁중뿐 아니라 중인, 서민들까지도 진경산수화를 애호함으로써 가장 많은 생산과 유통이 일어난 곳인 한양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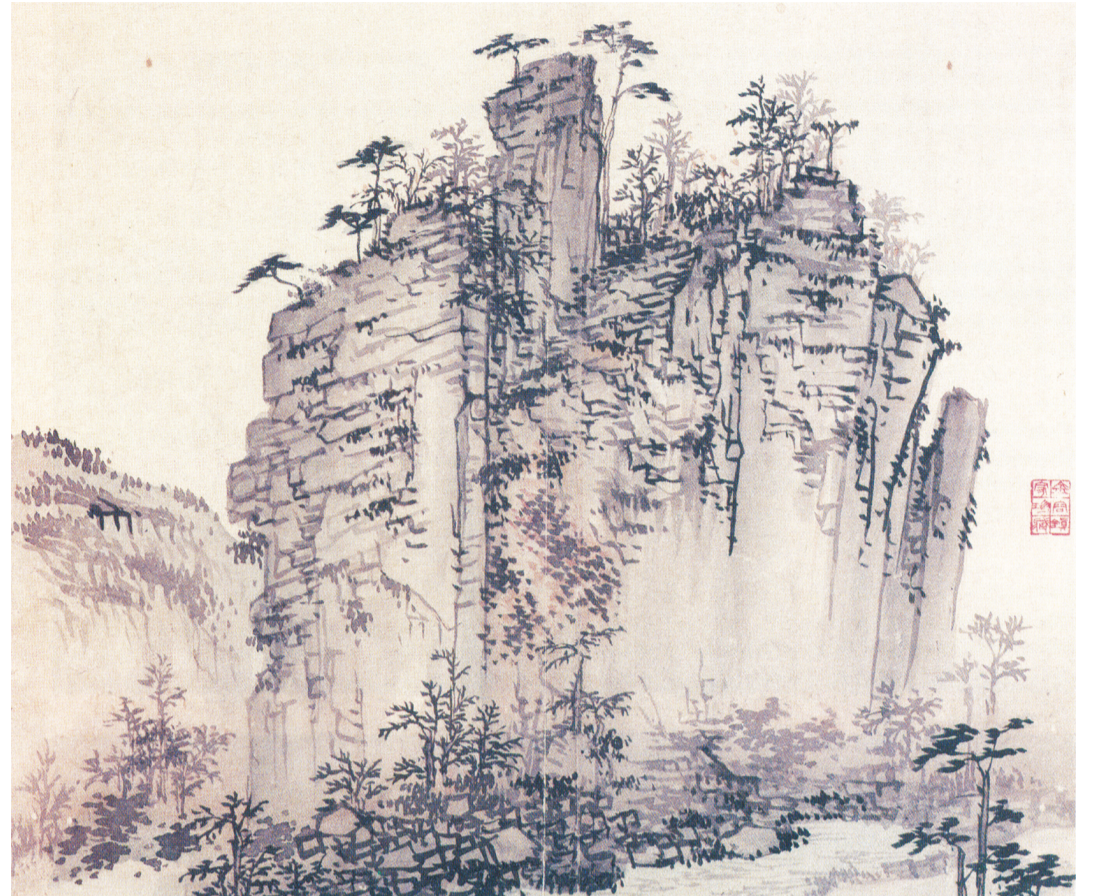
이윤영 '화적연도'

한양 이외에는 강원도의 금강산을 비롯해 관동 팔경, 충청도 사군산수(四郡山水) 등도 많이 재현됐다. 화가들은 전국 각지 경관을 그렸지만 한편으로 상징적 의미를 지닌 곳들을 재현하기도 했다.

또한 이름난 명소에서 모임과 장면을 재현한 야외회화도, 선비가 거주하거나 학문을 전수하는 공간인 유거도와 정사도, 정원이나 별장을 그린 별사도도 주요 주제였다. 아울러 국가와 관아에서 주관한 공적 행사 장면을 그린 공적 실경도, 유적지를 여행 후 기행의 성과를 담아낸 기행사경도도 진경산수화의 소재가 됐다.

책에는 진경산수화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한 부분도 기술하고 있다. 천기문적 진경산수화는 경물에 대한 화가의 반응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한 필치, 물기 많은 묵법을 사용했다.

사의적(寫意的) 진경산수화는 화가의 주관적 해석과 감흥을 중시한다. 심사정을 비롯해 김윤경, 이인성, 이윤영, 강세황, 정수영 등은 진경산수화를 그렸지만 정선과는 구별되는 화풍으로 외연을 확장했다.



조선 후기에는 관념산수화보다 실제하는 실경을 그리는 진경산수화가 확산됐다. 김홍도 작 '사인암도'.

서양화법을 선구적으로 활용한 사실적 진경산수화는 서양 투시도법을 수용했다. 강세황의 송도기행첩은 일점투시법, 원근법 등 서양적 요소를 활용한 결과물이다.

한편 책에는 진경산수화의 주요 작가와 대표작들이 수록돼 있어 조선 후기 회화사를 가능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тол베개·7만9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격차

제이슨 히켈 지음, 김승진 옮김



어느 한 인간의 불행, 또는 실패가 그 사람의 무능력으로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아니면 의지가 나약하거나 게을렀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도 한다. 지극히 단선적인 견해다. 그와 달리 그의 실패와 현재 불행이 금융위기 당시 직장을 잃은 데서 연유할 수도 있다. 노동자보호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당한 부당해고는 그의 삶을 뒤튼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빈익빈부익부는 점점 강화되고, 불평등도 심화된다. 언제까지 자본주의 폐해를 바라보고만 있어야 할까. 이에 대한 새로운 질문,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줄 해법은 없을까.

경제인류학자 제이슨 히켈이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한 '격차'를 펴냈다. 런던정치경제대학교 국제불평등연구소 방문 선임연구원이며 영국왕립 예술학회 회원인 저자는 극단적 불평등으로 치닫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에 탄생한 자본주의 체제와 산업혁명은 환경파괴와 기후 복수를 불러왔다. 저자는 역사적, 지리적 맥락에 토대를 두고 다양한 담론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저자는 빈곤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무국의 부채를 탕감하고 세계무역기구를 민주화하는 방안을 거론한다. 또한 현재의 교역 시스템을 공정하게 바꾸고 이미 알려진 지식은 기업이 마구잡이로 가져다가 특허를 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또한 '글로벌 최저 임금제', '보편 기본소득' 도입도 필요하며 기후 변화와 관련된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산업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름·3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언젠가 찾아올 그날을 위하여

이토 히데노리 지음, 김난주 옮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인들이라면 누구나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아이가 나이를 먹어 죽는다면...'이다. 10살이 넘은 노견·노묘를 키우는 가정이거나 한두 살 된 어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 누구라도 마찬가지다. 언젠가는 찾아올 미래의 그날을 생각하는 것조차 힘겨운 시간이 되곤 한다.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며 주로 동물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 취재하고 있는 이토 히데노리가 펴낸 '언젠가 찾아올 그날을 위하여'는 반려동물들을 잃은 직후 느끼는 슬픔과 상실감 등 정신적 고통을 겪는 '펫로스'에 대해 쓴 책이다.

20년 가까이 키우던 반려견 '민트'를 잃은 저자도 펫로스를 경험했다. 반려견을 잃고 슬퍼할 줄은 알았지만 생각보다 충격이 컸다고 고백한다. 펫로스가 어떤 것인지, 충격을 완화하거나 극복하는 방법이 있는지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저자는 취재를 시작했다.

책은 반려묘가 세상을 떠난 이후 섭식 장애를 앓게 된 연예인, 반려견을 잃고 10년 이상 마음이 멍쳐버린 여성, 반려동물의 죽음을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장애인 등의 사례가 담겨 공감과 위로를 불러일으킨다. 슬픔의 기간을 조금이나마 다독일 수 있는 방법도 풍부하게 실려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아직 옆에 있다면 한번쯤 읽어두면 좋을 책이다. 예정된 작별을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작별을 마주하는 법을 알아두는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펫로스는 슬퍼해도 괜찮다는 마음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겨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며 그 슬픔을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추억을 지닌 주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태일소담출판사·1만78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 DNA의 모든 것을 이토록 쉽고 재밌게 설명하다니! 비어트리스 지음, 오지현 옮김

홍콩의 '서클 DNA' 홈페이지는 20~80만원대 가격의 'DNA 키트'를 판매 중이다. 제품을 구매하면 면봉과 시험관, 펩텍스 배달 케이스 등이 도착해 자가 유전형질 검사를 할 수 있다. 태어난 연월일시에 따라 길흉화복을 점치는 동양적 사주와 달리, 과학적으로 율해 운세를 점치는 서구형 '사주 DNA검사'는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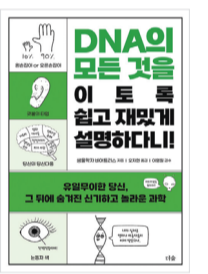
자신을 파악하는 데 관심이 있는 MZ세대 독자들에게 'DNA'를 중심으로 과학적 사실을 전하는 책이 나왔다.

생물학자 비어트리스가 펴낸 'DNA의 모든 것을 이토록 쉽고 재밌게 설명하다니!'에는 유전자를 통해 나 자신을 파악하는 질문들이 담겨 있다. 책은 어두운 피부톤, 높은 IQ나 탁월한 음악성, 인간의 긍정적인 태도 등이 유전형질과 맞물려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려준다.

"당신이 지닌 최적의 조건들은 어떤 하나의 형질을 끌어내기 위해 협주곡을 연주하듯 여러 유전자가 협력한 결과다. 당신의 키, 코 모양, 그리고 나무랄 데 없는 요요 기술은 멘델 유전학으로는 설명될 수가 없다."

저자는 몸에 나타나는 흥미로운 특징들이 '양자택일'의 결과로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신체 모양과 특기 등 요소들은 부모의 형질이 자신에게 전달된다는 멘델 유전학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의미다. 인류의 외형에 드러난 '유전적 특성'들은 저마다 광범위한 선택지들이 조합된 결과라는 생각을 남긴다.

동시에 책은 특정 형질이 다른 형질과 연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도 알려준다. 가령 머리가 크다고 해서 머리가 좋거나, 키가 크다고 해서 좋은 작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 예시다. <더숲·1만9000원>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그린알로에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